

인사 하는 줄 알고 악수 청하는 순간 공격

리퍼트 美대사 피습 상환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5일 습격한 범인은 가까운 테이블에 참석자로 가장해 앉아있다가 주변에서 미쳐 손을 새 없이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죽 먹는 순간 공격=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에 따르면 공격을 가한 김기중(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는 리퍼트 대사가 앉은 중앙 헤드테이블의 오른쪽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오전 7시 35분께 리퍼트 대사가 도착하고 5분여 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조찬이 시작되자 김씨는 갑자기 일어나서

한미 합동훈련 반대 유인물 내려 놓고 흥기 휘둘러

얼굴 80바늘·왼팔 신경접합술...트위터에 "난 괜찮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참석자 옆에 A4 용지 크기의 유인물 10장을 내려놓고는 "받으라"고 말했다.

그 후 김 대표가 헤드테이블 쪽으로 이동해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흥기를 수차례 휘두르기까지는 불과 1~2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다들 여유롭게 식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리퍼트 대사가 아침으로 나온 죽 첫술을 뜨자마자 갑자기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테러범이 옆으로 다가오자 리퍼트 대사가 자신에게 인사

하려는 줄 알았는지 악수를 청하려는 자세로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목을 부여잡고 쓰러졌다"고 전했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손 등을 다쳐 피를 많이 흘린 리퍼트 대사는 "도와달라"고 외쳤고 손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감싼 채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서 행사장 밖으로 이동했다.

수행원들은 외투를 벗어 대사를 가린 채 밖에서 대기하던 순찰차로 급히 옮겼다. 리퍼트 대사는 이동하는 동안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내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일부 대사관 소속 직

원들은 이 같은 돌발사태에 충격을 받은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유인물을 나눠주십시오. 지난 3월 2일에 훈련 반대하면서 만든 유인물입니다. 한일관계 다리가 날아갔어. 왜 전쟁훈련합니까. 전쟁훈련하면 우리나라 통일 영위 안 됩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쳤다고 목격자들은 말했다.

◇수술 후 안정=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수술을 집도한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은 5일 오후 "오른쪽 얼굴의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80바늘 정도를 꿰맸고 왼쪽 팔 전완부에 신경접합술을 시행했다"며 "다행히 안면 신경이나 침샘, 경동맥 등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생명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

박대통령, 철저 수사 주문

중동 4개국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과 관련, "이번 사건은 주한미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벽(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긴급보고를 받은 뒤 "오늘 리퍼트 대사의 피습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 및 경계 태세 등 철저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큰 충격을 휩싸였다.

특히 치안이 좋고 미국 외교관의 안전이 가장 잘 보장된 국가로 평가됐던 한국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CNN 등 미국 주요방송들은 이번 사건을 긴급뉴스로 전한 뒤 정규방송을 속보체제로 전환하고 시시각각 들어오는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중씨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들것에 누운 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간담회 소동 등 수차례 처벌

습격 김기중은 누구

5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중(55) 대표는 과거 일본 대사에게도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 처벌을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당시 일본 대사에게 지름 약 10cm와 7cm인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 대표는 법원에서 징역 2

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범행 후 이불을 덮은 채 들것에 실려 이동하면서 "전쟁 훈련 때문에 남북 이산가족들이 만나지 못했다"며 "전쟁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예전에도 틱스피릿 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를 위해 옮겨진 병원에서도 "이번 키리졸브 훈련도 꼭 중단시켜야 한다. 그래서 내가 희생을 했다"며 "전쟁 훈련을 중단시키고자 한 것이다"라고 되풀이했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간담회 등 행사에서 소동을 벌여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13일 오후 서대문구 창천교회에서 열린 신촌변영회 정기총회 박원순 서울시장 강연회가 끝날 무렵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변모(55)씨의 왼쪽 뺨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일본대사관에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규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제지당하자 경찰에게 신발과 계란을 투척해 입건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정부기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 문화전당 정책·예산·시설관리 총괄

김성일 추진단장 "4~5월까지 조직체계·인력 확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문화전당 특별법)을 토대로 설립될 정부 소속 기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전당의 운영정책, 예산 확보, 국제교류 협력, 시설관리 등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 탄생하는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전당의 위탁을 받아 문화전당 5개원의 운영,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 등 실행업무를 맡게 된다.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5일 광주일보 기자와 만나 "문화전당 특별법의 국회통과가 다소 늦었지만 오는 9월4일 문화전당 개관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문화전당 운영 조직의 윤곽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문화전당의 운영 조직체계와 인력규모는 행사부 등과 협의의 거쳐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까지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당의 조직을 꾸리는 사안은 행사부와 협의하고 현재 운영중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기재부의 협조를 얻어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문화전당 운영조직이 꾸러지면 "문화전당 운영조직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장과 아시아문화원장이 선임될 것"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속가능한 운영체제와 조직을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문화전당의 운영조직 구축과정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의 위상과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 가운데 문화전당과 연관된 전담기획과, 시설과 업무와 인원이 문화전당에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화부 부서로 남게될 추진단의 조직과 인력이 부분별하게 축소되면 사실상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의 핵심 현안인 7대 문화지구 현안을 추진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7대 문화지구는 광주 5개구를 문화권으로 나눠 문화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문화전당이 들어서는 광주 동구는 '문화전당권'으로 분류돼 있다.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 구축 차질과 관련, "콘텐츠 구축업무는 꾸준히 진행해왔다"며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때 문화전당을 일부 개관하는 사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로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속가능한 운영체제와 조직을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두환 미국내 재산 12억 환수

차남 재용씨 LA 저택 등...美 법무부 재판 종결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 6951달러(약 12억3000만원)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112만6000달러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를 전 씨의 차남 재용 씨와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와 박 씨 어머니 윤양자 씨가 공동으로 서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 법무부는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 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환수 조치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직접 공조해 국내로 환수하는 첫 사례이며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소송을 제기해 몰수한 미국 내 재산 112만6000 달러는 차남 재용 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 대금과 재용 씨 부인 박 씨의 미국 내 투자금(50만달러 투자미만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재용 씨 소유였다가 팔린 뉴포트비치 주택의 매각 대금 잔여분 72만6000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낸 데 이어 같은 해 9월 초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주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투자금 50만 달러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

미국 법무부는 이외에도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 씨 일가의 재산 2750만 달러(302억7000만원)를 몰수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재산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병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